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3호 [주제 제25366호] 주제 105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유진동지, 홍영철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남
도위원회 위원장 박태성동지
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새로 개관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식의 현대
적인 기계제품들을 개발생산
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온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판철에 한 사람같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
관을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으
로 맞받아 끊고나가며 당에서
준 전투적파업을 제기일에 흥
통히 수행하였을뿐만 아니라
총정의 200일전투에서도 자
랑찬 위훈을 펼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훤히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지난
해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다고,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린 결과 세계
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발생산할수 있었다고 하시
면서 방대한 개선공사가 비록 어려웠지
만 마음먹고 달라붙어 꾸려놓기를 점밀
잘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뜻밖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리여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영적이
어리여있는 일터,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
업의 맘아들공장, 중추공장, 핵심공장에서
일한다는 한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공,
조립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돌아
보시면서 생산정형과 기계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종합편의시설의 여러곳에
둘러시여 운영실태를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편의시설이 정말 훌륭하
다고, 이런 시설은 로동계급
의 세상인 우리나라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
합편의시설의 일군들과 봉사
자들이 봉사와 관리운영사업
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의 사람이 로동계급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
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조건
을 마련해준 당의 운데이고
마워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두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로동계급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
을 넣어 그들이 최상의 문명
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해
펼쳐나선 공장로동계급의 열
의가 대단히 높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
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로동계급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민족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최첨단기
계제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새로
개발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제철생산에 들어갈데 대한 지시와 일로
수행해야 할 전투적과업을 주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세워주시였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삼복칠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불면불휴의로고
와 친선을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솟구치는 걱정을
금지 못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전투임무를 결사판철 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만리마선구자집단에는 기마수가 있다

수도의 첫 전리마공장의 영예를 만리마시대에도 빛내여가고 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지난 1960년대 철리마선구자 집단은 수출한 공장, 수도의 첫 철리마공장으로 소문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 오늘 만리마시대의 본보기 공장, 전형단위로 온 나라에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매일과 같이 수많은 참관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당의 봉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를 잘 꾸리고 봉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꿈꿀나어야 한다.』

백두산절세워인들의 불멸의 봉도업적이

령도업적을 명줄로 틀어쥐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그 이름만 들려보아도 백두산절세워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가 새겨지고 철리마시대라는 부름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듯한 일터이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로부터 시작하여 봉도업적단위로서의 제모를 훌륭히 갖춘 공장의 꽃과 같아 바라는 만리마선구자집단의 기수, 기마수가 되자면 어떤 사상정신적각오와 책임성, 실천력을 지녀야 하는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1선에서 앞장서 걸찌며 일손을 놀리는 청년일군들을 보며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도 일군들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도로로 창용미술을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연 3,000m에 달하는 화강석연석이 도착하는 속에 불과 보름만에 구내도로화 정리와 포장공사는 이미 끝났다.

엄마후에는 구내의 공장에 업기설기 빙어나갔던 증기판들과 청기선들이 대부분 평속으로 들어갔고 지배인이 상원에 가서 가져온 수상나무들이 구내도로 주변에 뿌려내었다.

자기들의 두손으로, 자기들이 맑을 바쳐 해놓고도 선뜻 믿기 어려운 너두도 놀라운 사실을 통해 종업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공장도 이렇게 일매설수 있다는 신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몇십차례의 사상사업을 대신하는 실천을 통한 봉도업적교양의 실효였다.

봉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결지에서 너성종업원들이 대무분위기 공장의 특성에 맞게 천개 혼나간 것 또한 매우 시사적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지난 1960년대 공장건물을 새로 지어주면서 너성종업원이 많은 조건에서 빠져나와 유치원을 함께 건설하도록 해주셨다.

지배인 김영환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태아소, 유치원체육에 자연히 관심을 쓰게 되었다. 그 당시인 2000년대 초엽 공장종업원들의 80% 이상이 너성이라고 그중 500명이 상이 태아소, 유치원을 가진 어머니들이 있다.

지배인은 이 결심은 공장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로 받았다. 5년안팎에 공장을 봉도업적단위로서 활용해 주고 당이

맡겨준 인민경제계획을 어기없이 수행하는 수도의 가장 앞선 단위로 전면시킬 때 대한 문제에 3대혁명붉은기정위운동경의 목표의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옮겼다. 이것은 공장초금당위원회 전행위원회으로서 지배인 김영환동무가 마음속에 스스로 세긴 당적문제에서도 하도록 하였다.

불멸의 봉도업적교수를 명종으로 들어쥐고 그 면모를 갖추기 위한 꾸리기사업을 종업원들에게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러나 깊은 사색과 탐구속에 공장의 철망까지 내다보며 지배인이 내놓은 구내도로

로 껌풀을 끊어놓았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지배인은 꾸리기사업의 첫 목표를 6,000m²의 혁명사적교양실과 함께 포함한 연 2만 5,000m에 달하는 구내도로의

화장정비 및 조장봉사를 서로하였다.

그때로부터 지배인에게는 남모르는 일과가 생기었다. 공장경영관리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부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건설설계기관들을

통해 강의도 많았고 여러 건설장들에서 전속과 관련 한 지식들을 한들기 활동이 많아졌다.

그리나 일관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최단기간내에 무조건 점령하고야마는 무서운 철망에 영광의 일터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백과해 주는 하나님의 사상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킨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기 되는 첫째가는 장점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

주체조선의 위력이 날을 따라 과시되고 있다. 오늘 수소란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주권에서 세도하고 으스대는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있으며 핵미치광이들은 전률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의 조선제전문가들은 조선은 미국을 공포속에 물어넣는 핵강국으로 전변되었고 그것을 막아보려면 미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대조선제제와 군사적위협, 고립과 압박정책이 모두 실패하였다 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미국에 빠진 오바마행정부의 침폐상을 이유로 고하고 있다.

미국정부 회사 아시아태평양전략분석책임자는 회사의 주간잡지 흥에 이다.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 미국본토에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조선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 조선에 있어서 핵무기는 거래수단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사활적인 부분이다. 한편 문제는 조선의 핵능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

이 아니라 핵을 가진 조선을 지역암보의 견지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금수준으로 나선다. 미국은 조선의 핵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울에 올려놓고 있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경에 있는 전략적 출발점으로 되지 못한다. 최근간 조선의 핵능력 강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다. 조선의 위치에서 볼 때 핵능력 강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미국은 우선 조선의 핵보유인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선거결과, 한

창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조선문

서는 다음과 같이 미국대통령에 있어

될 것이라는 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페이트연구소 책임연구원

은 미국은 조선반도의 수령에서 말

을 빼야 한다?

글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조선을 볼수록

위한 방침을 모색했으나 그들이 시

도한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은 상

태이다. 이제는 『조선을 제거하는 것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

국에 부치는

비용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조선

반도의 소용돌이에서 밟을 때는 다

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시대착오적이

다. 미국이 조선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무리하고 경제적으로

제작으로부터 차별화된다. 조선은 미국

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

결책은 핵억제력이고 그것을 강화할

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고 있다.

조선은 언제 한번 그 제단들을 심중

해 한 번씩 없었다. 오직 우리를 암

살하는데만 불과하였다. 우리는 미국

의 핵전쟁책동을 해으로 꾼장내기

위한 대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암살

하는 것에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우리를 바라지 않

던 핵보유에 떠밀었다.

미국은 우리의 핵보유에서 늦게나

마교훈을 찾았어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현 집권총리는 미현하게도 시

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 빨리적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조선적제단을 허락해 미인것으

로 하여 조미사이의 침의 구도가 확

전혀 달라졌다. 미국이 즉각으로 핵

전쟁책동에 쟁취해온 데

조선전쟁시기 허락해온 대

핵전쟁책동을 허락해온 데

조선전쟁시기 허락해온 대

핵전쟁